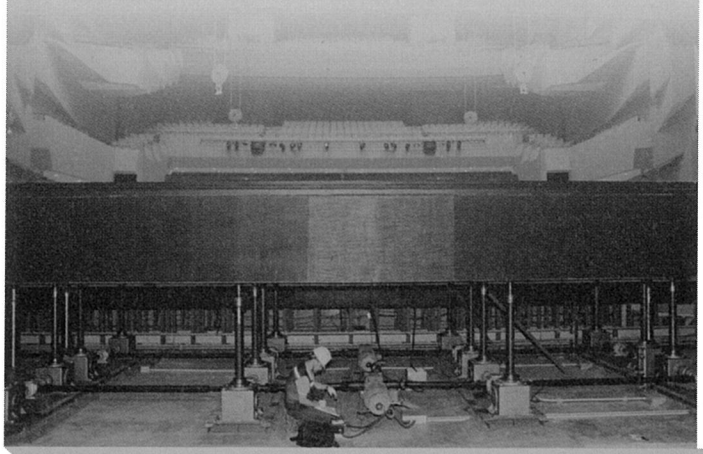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조사, 교류, 성남아트센터와 성남시민회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 창립됐다. 특히 재단 창립 이듬해인 2005년 성남아트센터에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등 극장과 문화강좌를 위한 강의실이 개관돼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연중 공연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비수기라 할 수 있는 기간은 하계 휴가철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산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면 공연장을 상대적으로 덜 찾게 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성남아트센터의 안전점검도 7월과 8월에 집중 진행된다. 푹푹 찌는 여름철 어두운 무대 뒤편에서 안전점검이 한창인 성남아트센터를 직접 찾아가 공연무대시설의 안전은 평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무대 환경 조성 '성남아트센터'

취재 **박병탁** 기자 ppt@safety.or.kr



철저한 안전 대응 방안 구축

성남아트센터는 공연사업장으로 여타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대개 사업장들이 근로자 안전에만 집중하면 되는 반면 이곳은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무대 공연을 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렸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혼잡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만약 방화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예방과 초동조치가 어느 곳보다 강조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권오태 과장은 "출연자와 관객들이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연 전 가볍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중"이라며 "복도와 계단에는 피난 유도선 설치 및 객석에도 호스릴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곳은 다른 공연장과 달리 로비가 아닌 객실 내부에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등 화재 대응을 위한 대비가 철저한 모습이었다. 또 2층 객석에는 전국 최초로 난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개 2층 객석은 안전을 위해 난간을 높게 설치하는 바람에 공연관람 때 관객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에는 난간을 높게 유지하다가 공

연이 시작되면 관람객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를 내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설치했다.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관리 강화

무대공연은 배우의 연기뿐 아니라 다양한 무대장치들이 유기적으로 공조돼 관객들에게 멋진 장면을 선사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각 무대장치를 운용하는 스탭 간에 사인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전체 공연이 일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 정확한 타이밍에 조명과 음향, 무대이동 등이 이뤄져야만 완벽한 무대연출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리조직도 상명하복식의 라인형 조직이 아니라 팀 위주의 스태프형 조직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조명팀, 음향팀, 전기설비팀 등 각각의 전문팀들이 본인 업무만 수행하도록 분장돼 있고, 다른 팀원이 업무를 대체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무대 조명이나 음향 등 어느 것 하나 허가받지 않은 채 다른 인원이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오페라하우스 촬영을 위해 조명을 점등하고 무대장치를 이동하는데도 사전에 협의와 양해를 구해야 했다. 각 담당자들이 무대로 직접 오고 나서야 무대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허락됐다.

김영관 대리는 "무대장치를 함부로 만지다가 무대 위의 장치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장치를 이동할 때도 무전을 통해 서로 이동위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한 이후에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전전문기관과의 업무 공조

성남아트센터는 안전·보건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성남아트센터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상담, 교육 등을 통해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 · 예방하고 있다. 이밖에 시설점검과 석면지도 작성, 실내 공기질 측정, 연간 5회 방역소독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애쓰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은 고객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는다.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 모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연간 1회 이상 실습위주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술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또 분당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자체 재난대비 능력을 점검하고 응급의료환자 발생 시 직원들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등의 사용법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혹서기, 혹한기 등 계절별 특정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건축물 정기점검과 소방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전기와 가스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무대디자인 전문가의 관록의 안전

성남아트센터에는 관록의 무대디자이너인 신선희 전 국립극장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무대디자이너로서 수십 년 경력을 보유한 그는 무대 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선희 대표는 이곳에 부임한 이후 공연장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함께 화재 시 초기대응 장치인 스프링클러의 동작여부를 일일이 점검했다. 성남아트센터 내에 관여되는 모든 사항을 일일이 보고받고 판단하는 그의 업무스타일 탓에 안전관리도 대표 지휘아래 꼼꼼히 진행되는 것이다. 신 대표의 안전에 대한 지론은 "비가 새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무대장치에 이상이 생기기전 사전에 조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 후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는 성남 아트센터가 신선희 대표 아래서 또 어떠한 안전혁신을 가져올지 기대해 볼만하다.

미니인터뷰

신선희 대표이사

안전은 세심하게 눈 여겨 보고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인 저부터 현장 안전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이 같은 안전에 대한 신념 때문입니다. 국립극장장을 할 때부터 극장 내 안전점검을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실무진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극장장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안전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시민회관 시찰을 돌면서 외벽이 바스러진 현장을 직접 발견해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세심하게 눈여겨보고 관심을 기울이면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태 과장

안전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전설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급상황에서 안전설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유사시에 우리가 대응매뉴얼이나 법규를 지켜가며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반문해 본다면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교육과 훈련활동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어떠한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과 교육을 철저히 하는 실천이 수반돼야 합니다.